

그 現況을 簡單히 記  
錄하여 두기로 한다.  
晚日寺址는 天興寺  
址에서 東쪽으로 溪  
谷을 따라 約六km 쯤  
들어가는 聖居山 中  
腹에 있는 데 이 寺址  
에는 公州附近에 遺  
存되어 있는 自然岩  
窟을 利用한 寺址와

그 性格이 서로 비슷하여 매우 注目되는 바이다. 寺址에는 現在 小佛堂  
이 있어서 香火가 繼續되고 있으며 寺址의 東쪽 絕壁 밑에는 自然的으로  
立되어 있는 岩面에 降魔印의 如來座像이 거의 丸刻에 가까울 程度로 浮  
彫되어 있는데 頭部는 破損된 것을 補修하고 全體에 白灰를 발라서 변모  
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彫刻의 手法으로 보아 高古한 作品임을 느끼  
게 한다. 佛像의 實測値는 總高一四三cm 肩幅六八cm 膝幅一一〇cm。第二  
窟內에는 佛像이 安置되어 있지 않고 洞窟의 南쪽 斷崖岩壁에는 如來像으  
로 推想되는 高約三m 可量의 磨崖佛이 彫刻되어 있는데 磨滅이 極甚  
하여 全혀 面相이나 衣紋等을 알아볼 수 없을 程度이며 佛像이 浮彫된  
岩面에는 木材를 결치고 지붕을 만들기 위한 四角形의 구멍이 뚫려있으  
며 바위 앞에는 石築으로서 기둥을 세웠던 礎石이 남아 있다. 그리고 晚  
日寺址에는 過去에 六朝佛樣式(註)의 石佛等이 남아 있었다고 傳하는  
데 踏查時에는 發見할 수가 없었으며 附近의 바위틈을 자세히 찾아본 즉  
여러 곳에 小形石像들이 끼어 있어서 知覺없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내버  
린 것으로 推測되는 바 全部 바위틈에서 꺼내다가 모은 것이 七軀인데 頭  
部는 缺失되었고 胴體一部가 缺失된 것도 몇 개나 되는데 其中에는 三國  
時代 手法이 엿보이는 것도 二軀있고 菩薩像의 胴體彫刻은 極히 優秀한  
手法을 나타낸 것이 있어서 거의 모두 保存을 要하는 重要資料이다. 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寺址內에는 조그마한 三層石塔과 磨滅이 甚  
하여 일른 알아보기 어려우나 十二支가 彫刻된 듯한 石塔基壇面石의 破  
片 등이 있는데 날이 어두어서 더 仔細한 調査를 못한 것이 애석하다.  
以上 概要만을 記錄하여 後日의 仔細한 調査를 期하고자 한다.

(註) 經部慈恩...百濟美術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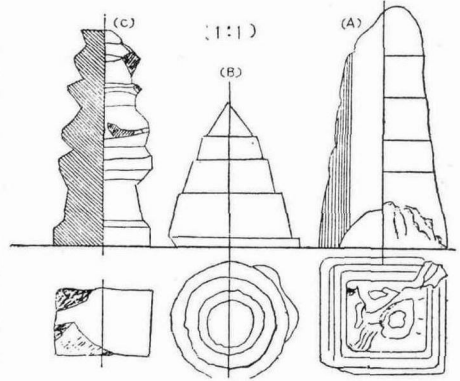
土製 및 石製 小型塔의 新例 鄭 明 鎬

一、土製塔

調査된 塔으로서는 方型과 圓鍾型으로 前者(圖A)는 方型으로 흙을  
빚어 竹刀로서 層을 簡單히 線刻으로 五層을 만들고 이 塔底面에 圓型  
의 구멍을 파내어 經文을 挿入한 裝置가 되어 있다.

後者(圖B)는 硬質로 燒成되어 있는 圓鍾型의 三層小塔이다. 이는 上  
層함에 따라 縮少되었으며 底面에는 아무런 裝置가 없다. 이러한 例는  
稀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곧 印度의 伏鉢型塔과 類似하다 할 것이  
다.

리하여 第二洞窟에 모두 安置하여 주고 庵子의  
老僧에게 供養은 못하나마 잘 좀 보살펴달라고  
付託은 하였으나 安否가 걱정되는 바이다. 或是  
佛頭가 있나하고 四方을 찾아본즉 비슷한 등글고  
기름한 돌이 두개 發見되어서 이것이 무슨 돌이  
냐고 물은즉 그것이 바로 佛頭였는데 오는 사람  
마다 한 바씩 땅에다 태기질을 쳐서 그 모양으로  
되었다는 것으로서 전혀 알아볼 수 없이 깨져나  
가고 알맹이만 남아 있는데 돌의 길이가 기름한  
것으로 보아 그 佛頭가 六朝式 佛頭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寺址內에는 조그마한 三層石塔과 磨滅이 甚  
하여 일른 알아보기 어려우나 十二支가 彫刻된 듯한 石塔基壇面石의 破  
片 등이 있는데 날이 어두어서 더 仔細한 調査를 못한 것이 애석하다.



一、青蠟石製小塔  
 一層의 基壇上에 三層의 方塔型屋蓋를 놓은 것으로서 長方型으로 彫刻되어 있다. 이는 三層上에 繼續屋蓋型의 흔적의 殘片이 붙어 있어 이 곳에 또 하나의 屋身이 繼續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相輪部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實測値는……

- A 高 一寸八分 底幅 一寸
- B 高 一寸一分 底徑 一寸一分
- C 高 一寸八分 底部 縱七分 橫五分

以上은 모두 慶州博物館所藏品으로서 年代는 新羅統一時代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考古美術 卅一

◎文化財委 第一分委(十三次)

九月 七日 開催되어 金庠基 金載元 李弘植 李相佰 金斗鍾 金元龍 黃壽永委員外 鄭局長 李課長 出席 討議事項 如左

- 一、石窟庵環境整理設計變更의 件……可決(柳海宗監督官說明)
- 一、海印寺藏經印出(六部) 配付處는 國立圖書館 東大 成大 釜大 馬大 東亞大 五個年으로 完了하되 春秋作業. 金斗鍾委員監督.
- 一、扶蘇山城迎月台에 扶餘 鴻山面 南村里 所在의 鴻山門樓를 移建한다(可決).
- 一、서울 城廓補修……原案대로 可決
- 一、其他

1、仁川博物館發掘 富川郡 永宗面 雲南里 支石墓 報告(八月二日字)

2、聖德大王神鐘각마線撮影許可報告(八月一三日字 慶州分館長立會)

◎文化財委 第一分委(十四次)

九月二十四日 開催되어 金庠基 金載元 李弘植 金斗鍾 金元龍 黃壽永委員 鄭局長 李課長 出席.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一、文化財管理局永久保存財產策定(別添目錄에 의하여 審議通過)
- 一、指定議決(李弘植委員提出)
- 國寶…金銅彌勒半跏像(傳平壤市平川里出土) 一軀 서울市 金東鉉氏所藏 寶物…金銅如來立像一軀 서울市 金東鉉所藏
- 一、埋藏文化財發掘許可
- 1、梨大博物館申請의 安東 一直面 造塔洞所在 新羅古墳(發掘年月日 一〇、一、一〇、一〇)
- 2、國立博物館申請 江華郡 河帖面 송해면 所在 支石墓三基(一〇、一、一〇、一五)

一、文化財發見報告

- 1、石塔…襄陽郡 강천面 屯田里. 三層 H、三·九m 江原道知事報告.
- 2、金佛…益山郡 礪山面 源水里 出土(全州檢察廳保管) 黃委員調查報告.
- 一、경주 聖德大王神鐘각마線撮影報告(八、三二開始 九、六完了)

◎全北益山서 純金在銘如來坐像發見

지난 八月 六日 益山郡 礪山面 源水里(獨笛洞) 寺址에서 農民 李秉老氏에 의하여 發見되어 全州檢察廳에 保管되었다. 全高五cm의 降魔印像으로 光背가 있는 鍍銀透刻作品으로 精巧한 솜씨를 보이는 完品이다. 光背裏板에는 刻銘이 있어 「男善人 金址映辛丑正月 日」이라 하였는데 年代는 高麗로 推定된다. (九月二十日 黃壽永氏調査)

◎高達寺址石燈屋蓋石調査

現 景福宮內에 所在하는 高達寺址雙獅子石燈의 屋蓋石이 現地에서 發見되었다는 소식에 依하여 (本誌「四의九」에 「뉴스」로 紹介된) 九月二十二日 鄭永鎬 李浩官 金和英諸氏 一行이 現地調査를 한 바 이것은 同石燈의 屋蓋石이 아니었음을 確